

## 단계적 인구이동에 따른 출산력 변화와 과소화: 전라북도를 사례로

이정섭\* · 김성환\*\*

### The Transition of Fertility and the Depopulation by the Stage Migration: A case study of Jeollabuk-do

Chungsup Lee\* · Sung Hwan Kim\*\*

**요약 :** 이 연구는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 및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이 농촌과 도시의 출산력 변화와 지역의 인구성장에 파급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사례지역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70·1990·2010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인구이동 O-D 행렬과 같은 기간의 20-34세 연령집단과 가임 여성인구 분포 및 출생·사망의 동태자료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시점의 젊은 연령집단은 큰 규모로 출생지에서 이출하는 선별적 이동을 했다. 둘째 세대별로는 앞선 세대는 과거 전라북도 농촌에서 도시로, 뒤따르는 세대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이 존재했다. 셋째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출은 출산·가임인구 축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자연적 인구 감소라는 과정을 수반되는데, 단계적 이동에 따라 과거 농촌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대부분 군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상회하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단계적 이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정주계층을 따라 단계적 과소화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어 :** 단계적 인구이동, 출산력, 과소화, 자연적 인구성장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selective migration of young age group and the stage migration which has proceeded through generations, on the transition of fertility and the population growth in the rural and urban in the case of Jeollabuk-do. For this, we use O-D matrix of 20-34 age group, the distribution of that group and women of child bearing age, and vital statistics in 1970-201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utflows from their birth place are common and dominant features of 20-34 age group in each time. Second, there is the stage migration which preceding generation moved from the rural areas to the cities in Jeollabuk-do and following generation has moved from the cities to Seoul metropolitan area. Third the selective outflow migration of young age group has led to reduction of the childbearing population, declining birthrate, aging and natural population decline. Due to the stage migration, these depopulation processes occurred in rural area in the past, and currently it expands to the cities with about 15 years time gap. In fact, there have been the natural population decrease which annual number of deaths exceed that of births from the late 1980s in the most rural areas and in the early 2000s, such a phenomenon has been confirmed also in

\*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yisup@jbnu.ac.kr

\*\* 신라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c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illa University), phygeokim@chol.com

urban areas.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tage migration through generations is one of the crucial factor to the population growth in local cities and also brings out the step-wise population decrease in settlement hierarchies.

**Key Words** : stage migration, fertility, depopulation, natural population increase

##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경제, 정책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원인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연구들이 확대되고 있지만(이삼식 등, 2010; 정수열, 2013), 사실 저출산 현상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83년 무렵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 TFR=2.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3년에는 전세기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약 1.187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인구의 자연성장률(natural increase rate), 즉 인구 1,000명 기준의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뺀 값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확인된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인구동태통계 및 주민등록인구자료를 기준으로 1970년 약 23.2명이던 것이 1983년에는 12.9명, 2000년에 8.2명, 그리고 2013년에는 3.4명 수준까지 낮아졌고,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동시에 빠르게 감소하는 출산력의 영향으로 우리 국토의 상당수 시군 지역들에서는 인구의 자연성장률이 영성장(zero growth)을 밑도는 절대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자연성장률은 연평균 약 4.06명이었지만, 같은 기간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75개 시 중에서 16개와 78개 군 중 67개 지역들에서는 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16개 시와 7개 군은 같은 기간 비록 양(+ )의 자연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가까운 미래에 음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시계열적으로는 절대감소의 자연적 인구성장이 발생하는 빈도와 그 지역적 범위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정주계층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하는 지역들로 확산되고 있다. 먼저 군 지역들의 경우, 1985년 전

후로 전남 보성·영암·함평군, 경남 산청·남해군 등에서 처음으로 절대감소의 자연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2000년 무렵에 이르러서 군 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되었다. 시 지역에서는 2000년 무렵 경북 상주·문경시, 전북 김제시 등에서 음의 자연성장률이 처음 나타난 이후 현재까지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보령·논산시, 전북 정읍·남원시, 전남 나주시, 경북 경주·김천·영주·영천시 그리고 경남 밀양시 등이 더해져, 비수도권에 입지한 47개 시 중 약 1/3 정도까지 늘어났다. 광역시에서도 부산과 대구가 비록 양의 자연성장률이 나타나고 있지만, 2000년 이래 그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인구의 자연성장률이 음을 기록하는 지역들 중에서 앞서 16개 시들은 몇몇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연적 인구성장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47개 시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구의 자연성장률이 나타나는 시는 15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28개 시 모두는 전국 평균 이상이다. 둘째, 인구가 적은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경주시 인구가 예외적으로 약 26만 명 이상일 뿐, 나머지 15개 도시들의 인구는 약 7만 3천~13만 7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 군에서 시로 승격된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김천시와 경주시는 각각 1949년과 1955년에 시로 승격되었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1980년에서 1996년 사이에 승격되었다. 넷째, 이들 도시들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인구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중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감소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도시들의 사회적 감소에서 가장 큰 몫은 20대 연령 집단의 이출이며, 5세 연령 간격의 순이동자수를 기준으로 20-24세와 25-29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

이너스가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점들은 이정섭(2014)의 주장처럼, 부모-자녀, 베이비 부머-에코 부머 등 세대(generation)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단계적 이동(stage migration)이 우리나라 비수도권 도시들의 자연적, 사회적 그리고 전체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과거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증가와 시 승격은 주변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부모 세대가 20대 연령에서 선별적 이동과정 중 이입된 것과 해당 도시들에서 독립, 취업 및 가구를 형성하고 자녀 세대를 출산한 사회적, 자연적 인구증가의 결과이며, 지금의 인구정체 또는 감소는 그곳에서 출생, 성장한 자녀 세대가 20대 연령에 이르러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으로 선별적 이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구이동은 본질적으로 이동 출발지(O)와 목적지(D)의 변화에 동시적인 영향을 주고, 인구이동 결과로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의 인구구성이 바뀌고, 이로 인해 두 지역에는 순환적인 변화가 유도된다(Foulkes and Newbold, 2000; 최은영, 2004).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동안 이촌향도로 대변되는 농촌의 인구이출, 특히 젊은 연령집단의 이출은 가임·출산 인구집단 규모의 축소, 출산력 저하를 거쳐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과소화 및 고령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16개 도시의 절대감소라는 자연적 인구성장 현상은 과거 농촌지역들이 경험했던 인구과소화 문제가 단계적 이동과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에서 재현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상향적 정주계층으로의 단계적 이동, 즉 과거 농촌에서 중소도시로의 이동을 거쳐 다시 중소도시를 떠나 대도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최근의 지역 간 인구이동 양상을 추적, 탐색하고, 이러한 지역 간 이동의 결과로서 인구과소 문제가 농촌을 넘어 비수도권 중소도시들로 전이되어 확대되는지를 출산력 지표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아래에서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동태 등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인 농촌과 중소도시 인구의 선택적 이동과 성장, 그리고 두 정주계층의 가임·출산 인구집단의 분포, 그 규모, 출산력 등의 변화가 주요 분석대상이며, 그 시

간적 범위는 공식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인구동태와 지역 간 인구이동 자료들이 공표되기 시작한 1970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의 6개 시와 8개 군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 2. 단계적 이동과 선별적 이동

### 1)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단계적 이동

1970년 ‘총인구조사’에서 국내인구이동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주민등록에 기초한 ‘국내인구이동통계’가 작성, 공표되면서부터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대한 기간 연구 성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기란 어렵지만, 상당수 연구들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와 맞물려 정주 계층적으로는 이촌향도로 대변되는 도시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제시했다. 1970년 이후 인구센서스의 현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 자료를 통해서 지역 간 인구이동량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이동 중 농촌에서 도시, 즉 군부에서 시부로의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50.7%, 1980년 44.9%, 1990년 33.4%였고, 그리고 서울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약 345만 명의 누적 순이동자수를 기록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이러한 인구이동 양상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전체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대신 도시 간 이동이 주요한 이동 양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에 전체 지역 간 이동량 중 시부에서 시부로의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7%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는 50.6%로 크게 증가했고, 199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부에서 동부와 읍부로 이동하는 비율이 약 80%를 초과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비록 서울이 1990년을 기점으로 전입 초과에서 전출 초과로 반전되고, 1990

년에서 2010년까지 누적 순이동자수가 약 -224만 명을 기록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로는 약 218만 명 이상의 누적 순이동자수를 기록했다.

1990년을 전후로 나타난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 변화에 대해서 Zelinsky(1971)가 제시한 인구이동 변천가설(hypothesis of mobility transition)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이촌향도를 대신하여 도시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현재의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주된 흐름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 사회가 Zelinsky의 가설이 설정한 다섯 단계(phase) 중, 두 번째 초기 변천사회, 세 번째 후기 변천사회 단계를 거쳐 선진사회로 전환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해당 가설만으로는 여전히 계속되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설명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인구이동으로 인한 농촌-도시, 지방-수도권 등 구체적인 정주계층 및 지역별 변화를 탐색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촌향도를 대신한 도시 간 이동과 이런 변화에서도 계속되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Hägerstrand(1957)가 ‘chain mig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한 단계적 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단계적 이동을 부모세대가 농촌에서 근처의 작은 도시들로 이동했고,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 자녀세대들이 생애 성장단계 무렵, 큰 도시나 정주계층의 상위계층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용어의 적절성, 불명확한 개념 정의, 분석 자료의 한계 등 여러 논란이 있고, 특히 단계적 이동의 주체와 시간적 범위가 한 개인의 생애동안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세대 간(inter-generation)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onway, 1980). 하지만 Shaw(1975)와 Roseman(1977)은 단계적 이동 대부분은 세대 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Pryor(1969)는 ‘complex step migration’, Skeldon(1977)은 ‘stage migration’, Riddell and Harvey(1975)는 ‘inter-generational step-wise migr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최소한 집계 자료 수준의 분석에서 ‘chain migration’과 유사한 이동양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와

논의들을 앞서 살펴본 1990년 전후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의 변화에 적용시킨다면, 과거 이촌향도는 부모 세대는 농촌에서 중소도시와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것, 그리고 최근 도시 간 이동은 자녀 세대 중 중소도시에서 출생·성장한 이들이 다른 도시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로 단계적 이동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 이때, 부모 세대 이출에 따른 농촌의 저출산과 과소화 현상이 자녀 세대에서는 그들의 이동 출발지에서 다시 나타날 개연성도 높아지게 된다.

## 2)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과 출산력

국가 혹은 지역 단위의 인구구조는 그 시대의 사회적 소산으로 출산력과 사망력 그리고 이동에 의해 결정되며 이중 출산력은 인구증감뿐 아니라 인구구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구현, 2000). 그런데 출산력과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단위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과정과 함께 개별 지역 단위에서의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개별 지역 단위의 지역 간 이동은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selective migration)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연령집단이 각각 이출과 입지지역에서는 이동자들 생애단계와 결부되어 혼인 그리고 가임·출산 인구규모 변동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출산력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의 조사항목 중 1년/5년 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에 관한 자료, 1983년과 1997년 인구이동에 관한 특별조사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의 실증적 분석과 연구들에서는 이동자의 성, 교육, 혼인 및 노동시장 참여 상태 등 선별적 특성 중 20-34세의 젊은 연령이 지역 간 이동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이홍탁, 1987; 이한순, 1988; 김태현, 1996; 이병기, 1999; 이희연, 2003; 최은영, 2004; 권상철, 2005; 최진호, 2008; 이상림, 2009). 그리고 해당 연령은 표 1, 2와 같이 생애에서 혼인과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에 해

표 1. 우리나라 성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단위: 세)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3년
남자	25.4	27.2	27.3	27.8	29.3	31.8	32.2
여자	21.6	23.3	24.1	24.8	26.5	28.9	29.6
남녀 차이	3.8	3.9	3.2	3.0	2.8	2.9	2.6

출처: 김혜경, 1989, 한국의 초혼연령과 출생간격의 변화에 관한 연구, p. 34/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2. 우리나라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와 출산율 변화

기간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단위: 천 명)							모의 연령별 출산율(단위: 여성 천 명당 출생아 수)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60-'65년	178	1,304	1,727	1,144	688	269	23	29.6	237.4	328.8	256.4	179.7	85.6	8.5
'65-'70년	137	1,145	1,760	1,115	545	191	27	19.5	197.5	318.7	218.6	125.2	53.0	9.1
'70-'75년	122	1,326	1,851	1,068	471	158	23	13.8	192.3	316.3	196.4	93.5	37.5	6.4
'75-'80년	150	1,354	1,696	656	225	67	18	14.8	154.0	242.4	113.3	41.5	13.6	4.2
'80-'85년	127	1,439	1,797	467	109	29	7	12.3	142.3	199.4	67.3	18.6	5.4	1.5
'85-'90년	70	1,009	1,707	381	57	9	1	6.5	97.3	164.3	42.4	8.1	1.5	0.1
'90-'95년	42	792	1,910	645	110	12	0	4.2	75.4	182.9	62.8	12.3	1.7	0
'95-'00년	27	491	1,649	730	157	21	0	3.0	50.0	160.7	71.5	15.3	2.4	0
'00-'05년	18	243	1,106	812	171	28	0	2.2	27.3	114.8	80.0	16.7	2.7	0
'05-'10년	16	152	885	960	258	30	2	2.1	18.7	98.5	98.3	25.1	2.9	0.2

자료: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http://esa.un.org/unpd/wpp/Excel-Data/mortality.htm>).

당되고, 따라서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상향적 정주계층으로의 단계적 이동에 따른 출산력 및 인구성장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인구이동에 대한 시계열적 탐색이 요구된다.

한편, 인구이동이 해당 지역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우선 어느 출산력 지표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적 범위에서 한 지역의 출산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조출생률, 모아비, 일반출산율,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그리고 (순)재생산율 등이 사용된다. 이 중 조출생률은 한 지역 전체 출생아 수를 연앙인구의 비로 나타낸 것이고, 나머지 출산력 지표들은 가임 연령기 15-49세 여성인구를 분모로 설정한다. 그런데 이들 지표 중에서 한 지역의 특정 연령 인구집단 변동과 출산력 변화 간의 관계를 분

석하고 나아가 이를 여러 지역 간에 비교하고자 했을 때, 가임 연령대의 여성인구를 분모로 취하는 지표들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개별 지역을 분석 단위로 했을 때, 분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20-34세 인구집단 중 일부가 이미 이출 혹은 이입된 것이 고려될 수 없고, 전체 인구성장이나 인구구조와 출생을 연계하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조출생률이란 용어는 출생수준의 측정지표로서 '조잡'하다는 뜻이지만, 인구증가에 출생이 얼마나 공헌하였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권태환·김두섭, 2007), 20-34세 연령집단 규모 변동이 출산력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단계적 인구이동과 출산력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비교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조출생률이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표 3. 1970년 20-34세(1935-1950년생) 연령집단의 지역 간 순이동자수

(단위: 명)

출생지	현재거주지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서울	서울	0	-15,957	-20,843	-154,143	-14,505	-33,381	-16,739	-62,161	-21,408	-161,007	-24,942	-96,680	-41,877	-126,382	-86,223	-19,440	-53,612	-1,641	-3,545			
부산	부산	15,957	0	208	-387	-679	-1,180	-829	-5,746	-1,137	-6,121	-1,543	-6,353	-4,387	-14,710	-47,544	-26,404	-153,724	-338	-2,357			
경기 시부	경기 시부	20,843	-208	0	-35,478	-1,011	-3,503	-1,370	-5,751	-1,949	-22,986	-1,643	-6,454	-2,635	-10,544	-7,018	-1,289	-4,378	-225	-197			
경기 군부	경기 군부	154,143	387	35,478	0	-41	-7,645	-1,236	-11,358	-1,924	-26,233	-2,342	-13,370	-5,238	-20,000	-11,361	-1,521	-7,329	-130	-703			
강원 시부	강원 시부	14,505	679	1,011	41	0	-15,242	-583	-1,511	-42	-1,384	-290	-881	-536	-1,224	-198	-1,163	-43	-64				
강원 군부	강원 군부	33,381	1,180	3,503	7,645	15,242	0	-554	289	-366	-2,764	-684	-2,713	-1,431	-4,776	-21,249	-514	-4,077	40	-42			
충북 시부	충북 시부	16,739	829	1,370	1,236	583	554	0	-16,425	877	-1,412	-47	-1	21	-345	151	323	-55	-54	10			
충북 군부	충북 군부	62,161	5,746	5,751	11,358	1,511	-289	16,425	0	11,159	1,572	254	-907	-312	-2,187	2,398	1,058	-459	62	22			
충남 시부	충남 시부	21,408	1,137	1,949	1,924	42	366	-877	-11,159	0	-33,493	-866	-4,108	-460	-1,885	-2,542	142	-1,375	64	-47			
충남 군부	충남 군부	161,007	6,121	22,986	26,233	1,384	2,764	1,412	-1,572	33,493	0	2,203	-3,459	278	-2,194	1,620	1,574	-644	74	-99			
전북 시부	전북 시부	24,942	1,543	1,643	2,342	290	684	47	-254	866	-2,203	0	-39,384	-1	-3,982	-102	232	-956	50	40			
전북 군부	전북 군부	96,680	6,353	6,454	13,370	881	2,713	1	907	4,108	3,459	39,384	0	4,823	-5,169	1,757	590	-301	209	40			
전남 시부	전남 시부	41,877	4,387	2,635	5,238	536	1,431	-21	312	460	-278	1	-4,823	0	-87,287	2	576	-1,002	146	-191			
전남 군부	전남 군부	126,382	14,710	10,544	20,000	1,224	4,776	345	2,187	1,885	2,194	3,982	5,169	87,287	0	2,038	1,703	642	1,403	1,328			
경북 시부	경북 시부	38,316	15,032	2,839	3,276	839	3,567	-151	-2,398	240	-1,620	101	-1,758	-2	-2,039	0	1,896	-24,136	64	-360			
경북 군부	경북 군부	86,223	47,544	7,018	11,360	3,477	21,249	1,465	4,327	2,542	837	149	-252	-424	-702	140,946	5,646	-1,408	22	-320			
경남 시부	경남 시부	19,440	26,404	1,289	1,521	198	514	-323	-1,058	-142	-1,574	-232	-590	-576	-1,703	0	0	-52,051	-83	-313			
경남 군부	경남 군부	53,612	153,724	4,378	7,329	1,163	4,077	55	459	1,375	644	956	301	1,002	-642	1,408	52,051	0	269	-228			
제주 시부	제주 시부	1,641	338	225	130	43	-40	54	-62	-64	-74	-50	-209	-146	-1,403	-22	83	0	0	-5,671			
제주 군부	제주 군부	3,545	2,357	197	703	63	42	-10	-22	47	99	-40	-40	191	-1,328	321	313	228	5,671	0			
현재거주지(D) 순이동자수	현재거주지(D) 순이동자수	992,802	272,306	88,635	-76,302	11,240	-18,543	-2,889	-110,996	30,020	-252,344	14,351	-176,512	35,577	-288,502	-329,702	16,821	-306,069	5,560	-12,697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 3. 1970, 1990, 2010년의 20-34세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있어 단계성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 중 농촌→비수도권 중소도시→수도권 및 대도시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1970년, 1990년 및 2010년 세 시점을 기준으로 농촌-도시의 정주계층과 시도 단위로 지역을 결합시켜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 1) 1970년과 1990년 전국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순이동자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각 시점 인구센서스의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이동인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각 시점의 서울, 광역시(직할시) 그리고 개별도에서는 군부와 시부로 구분한 지역들을 이동의 출발지이자 동시에 도착지로 설정하여,  $i$ 지역과  $j$ 지역 간 20-34세 연령의 순이동자수  $t_{ij}$ 를 원소로 하는  $n \times n$ 의 O-D 행렬을 작성하였다. 1970년은  $20 \times 20$ , 1990년은 대구·인천·광주·대전의 직할시 승격으로  $24 \times 24$ 의 O-D 행렬로 구성되었고, 각 도의 군부와 시부는 해당 시점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행렬에는 출생지가 해외, 혹은 휴전선 이북 지역인 인구는 제외되었다.

1970년 당시 20-34세 인구는 1935-1950년 그리고 1990년의 경우는 1955-1970년의 출생 집단이다. 먼저 1970년의 O-D 행렬을 살펴보면, 전국의 모든 군부에서 순이동자수가 음을 기록했고, 양을 나타낸 주요 이입지역은 특별시와 직할시였던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를 비롯한 대다수 시부 지역들이다. 이를 지역과 정주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시부에서는 나머지 지역들과의 순이동자수에서 모두 양을 기록했는데, 그 규모가 11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경제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주계층적으로는 경기와 충북의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도의 시부에서 순이동자수가 양으로 나타났다. 물론 해

당 시부들에서도 서울, 경기 시부 그리고 부산으로 큰 규모의 이출이 나타났지만, 주변 군부에서 이를 상회하는 이입의 흐름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한 구체적인 이동량을 살펴보면, 전국의 군부에서는 약 157만 명의 순이출, 시부에서는 약 30만 명의 순이입 그리고 특별시와 직할시였던 서울과 부산에서는 약 127만 명의 순이입을 기록했다.

1990년에는 이전 시점에 비해 대구·인천(1981년), 광주(1986년), 대전(1989년)이 직할시로 승격된 상태인데, 이들 지역과 기존의 특별시인 서울, 직할시인 부산 등에서 모두 양의 순이동자수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970년과 비교했을 때, 서울에서 인천 및 경기 시부로의 지역 간 순이동자수가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어 각각 -29,393명, -143,765명이 이출되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입은 오히려 확대되어 약 170만 명이 이입되었다. 게다가 인천과 경기 시부 지역도 각각 약 38만 명, 109만 명이 이입되는 등 전체 수도권 지역에서 약 296만 명의 순이동자수 나타나 수도권 집중의 규모가 약 세배 정도 확대되었다. 한편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비수도권 직할시들은 약 105만 명이 이입되었지만, 경기를 제외한 8개 도의 시부 지역에서는 약 18만 명의 순이입<sup>1)</sup>, 군부 지역에서는 약 420만 명의 순이출이 나타났다.

1970년과 1990년이라는 두 시점에서 현거주지-출생지를 기준으로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순이동자수 변화를 비교하면, 이촌향도와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두드러지고 그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다. 이것은 1990년의 20-34세 연령집단의 출생시기가 1955년부터 1970년까지로 우리나라의 1차 및 2차 베이비 붐과 대체로 일치함으로 인해(김태현, 2010) 이전 세대에 비해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성장, 독립하면서 선택적 이동이 진행되던 시기의 경제개발과 산업화라는 기간 효과(period effect)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두 시점의 비교만으로는 농촌→비수도권 중소도시→수도권 또는 대도시로의 단계적 이동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단계적 이동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의 출생 분포 그리고 이후 시점에서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4. 1990년 20~34세(1955~1970년생) 연령집단의 지역 간 순이동자수

(단위: 명)

현거주지 출생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시부	경기 군부	강원 시부	강원 군부	충북 시부	충북 군부	충남 시부	충남 군부	전북 시부	전북 군부	전남 시부	전남 군부	경북 시부	경북 군부	경남 시부	경남 군부	제주 시부	제주 군부
서울	0	-46,401	-31,307	29,393	-34,779	-10,981	143,765	-174,258	-55,837	-99,297	-16,545	-128,715	-56,294	-227,853	-60,906	-217,808	-74,719	-325,696	-54,191	-148,722	-78,384	-5,509	-6,443	
부산	46,401	0	-3,661	5,184	-2,677	660	19,394	-2,977	-8,194	-13,591	-1,528	-13,792	-2,435	-11,695	-4,347	-20,364	-10,834	-67,817	-20,810	-92,290	-262,897	-776	-4,202	
대구	31,307	3,661	0	3,211	-272	877	12,538	224	-4,334	-6,361	-312	-8,369	-752	-4,641	-678	-5,015	-467	-5,367	-27,355	-265,190	4,707	122	-274	
인천	-29,393	-5,184	-3,211	0	-4,091	-2,139	2,365	-61,825	-10,501	-23,779	-3,826	-24,171	-14,877	-60,290	-8,239	-27,476	-10,005	-46,192	-7,434	-23,292	-10,260	-783	-920	
광주	34,779	2,677	272	4,091	0	1,023	12,604	1,652	-107	-377	297	-670	-81	-973	-943	-11,964	-12,933	146,607	512	-702	-542	363	-47	
대전	10,981	-660	-877	2,139	-1,023	0	8,955	-2,787	-1,942	-3,167	1,159	-30,599	-7,010	-64,240	-2,608	-14,524	-1,549	-7,692	-2,007	-7,259	-2,940	-128	-188	
경기 시부	-143,765	-19,394	-12,538	-2,365	-12,604	-8,955	0	-138,977	-29,800	-63,304	-13,336	-67,537	-32,342	-133,659	-28,372	-84,602	-28,225	-129,847	-24,772	-66,312	-32,520	-1,842	-2,580	
경기 군부	174,258	2,977	-224	61,825	-1,652	2,787	138,977	0	-4,722	-22,000	527	-18,292	-4,906	-25,706	-4,256	-21,698	-6,610	-28,571	-3,194	-15,706	-7,628	-58	-876	
강원 시부	55,837	8,194	4,334	10,501	107	1,942	29,800	4,722	0	-44,656	1,035	-3,585	-331	-1,647	-203	-2,139	-116	-2,167	1,369	-6,695	45	312	-174	
강원 군부	99,297	13,591	6,361	23,779	377	3,167	63,304	22,000	44,656	0	5,781	-630	1,258	-317	232	-2,034	421	-2,528	3,825	-968	1,274	254	-6	
충북 시부	16,545	1,528	312	3,826	-297	-1,159	13,336	-527	-1,035	-5,781	0	-66,138	-2,003	-8,519	-693	-2,316	-546	-2,780	-1,256	-4,969	-908	28	-64	
충북 군부	128,715	13,792	8,369	24,171	670	30,599	67,537	18,292	3,585	630	66,138	0	3,179	2,635	675	-663	825	-922	5,807	375	1,468	292	-18	
충남 시부	56,294	2,435	752	14,877	81	7,010	32,342	4,906	331	-1,258	2,003	-3,179	0	-30,396	-33	-1,841	-277	-2,125	-10	-1,479	2,130	275	-37	
충남 군부	227,853	11,695	4,641	60,290	973	64,240	133,659	25,706	1,647	317	8,519	-2,635	30,396	0	3,922	-4,660	506	-3,302	4,554	-192	444	748	81	
전북 시부	60,906	4,347	678	8,239	943	2,608	28,372	4,256	203	-232	693	-675	33	-3,922	0	-101,974	-986	-10,831	424	-651	-564	321	21	
전북 군부	217,808	20,364	5,015	27,476	11,964	14,524	84,602	21,698	2,139	2,034	2,316	663	1,841	4,660	101,974	0	4,459	489	4,118	1,368	2,371	778	10	
전남 시부	74,719	10,834	467	10,005	12,933	1,549	28,225	6,610	116	-421	546	-825	277	-506	986	-4,459	0	-66,803	-130	-2,281	-2,216	1,059	-5	
전남 군부	325,696	67,817	5,367	46,192	146,607	7,692	129,847	28,571	2,167	2,528	2,780	922	2,125	3,302	10,831	-489	66,803	0	4,565	1,140	3,706	5,987	929	
경북 시부	54,191	20,810	27,355	7,434	-512	2,007	24,772	3,194	-1,369	-3,825	1,256	-5,807	10	-4,554	-424	-4,118	130	-4,565	0	-107,532	-9,393	130	-190	
경북 군부	148,722	92,290	265,190	23,292	702	7,259	66,312	15,706	6,695	968	4,969	-375	1,479	192	651	-1,368	2,281	-1,140	107,532	0	63,213	3,614	113	
경남 시부	25,671	20,126	-4,707	3,223	-2,370	-828	12,726	-2,181	-7,121	-12,274	-2,830	-11,325	-2,130	-11,378	-3,519	-11,691	-4,127	-23,633	-17,344	-63,213	0	-335	-1,686	
경남 군부	78,384	262,897	46,520	10,260	542	2,940	32,520	7,628	-45	-1,274	908	-1,468	429	-444	564	-2,371	2,216	-3,706	9,393	-3,614	210,697	0	693	
제주 시부	5,509	776	-122	783	-363	128	1,842	58	-312	-254	-28	-292	-275	-748	-321	-778	-1,059	-5,987	-130	-944	335	0	-22,437	
제주 군부	6,443	4,202	274	920	47	188	2,580	876	174	6	64	18	37	-81	-21	-10	5	-929	190	-113	1,686	261	22,437	
현거주지(D) 순이동자수	1,707,158	493,374	319,260	378,746	115,306	126,938	1,090,374	-217,433	-63,606	-295,368	60,586	-387,476	-82,372	-580,780	4,272	-544,362	-74,807	-888,518	-16,344	-809,241	-653,408	25,312	-39,254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 2) 2010년 전라북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순이동자수 추계방법

2010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순이동자수를 파악해서 이를 이전 시점과 비교하고자 할 때 다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1995년 인구센서스부터 출생지는 이전과 같이 시부와 군부로 구분되었지만, 현 거주지 구분을 동부, 읍부, 면부로 변경했기 때문에 순이동자수 계산을 위한 정방향 O-D 행렬 작성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1995년 전국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동부를 도시, 읍부와 면부를 농촌으로 치환하는 등의 분석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센서스의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인구'자료와 추가로 '현거주지/연령/출생지유형별 인구'자료를 병합하여 시부와 군부

간 순이동자수를 추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인구'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 시·군부의 1975년에서 1990년까지 출생자수와 이들 중 현재 전북 외 거주자수와 전북 내 거주자 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현거주지/연령/출생지유형별 인구'자료에서는 시·군부별 현재 거주자수와 각각 출생지가 전북 내외를 구분한 수를 구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면, 전라북도 시·군부와 다른 시도 간 순이동자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거주지/연령/출생지유형별 인구'자료에서 출생지유형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을 합한 값을 출생지와 거주지가 같은 경우로 간주하고, 해당 값을 시·군부의 전북 내 거주자·출생자 수에서 빼서 전북 내의 시부와 군부 간 이동량을 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와 앞선 시점인 1970, 1990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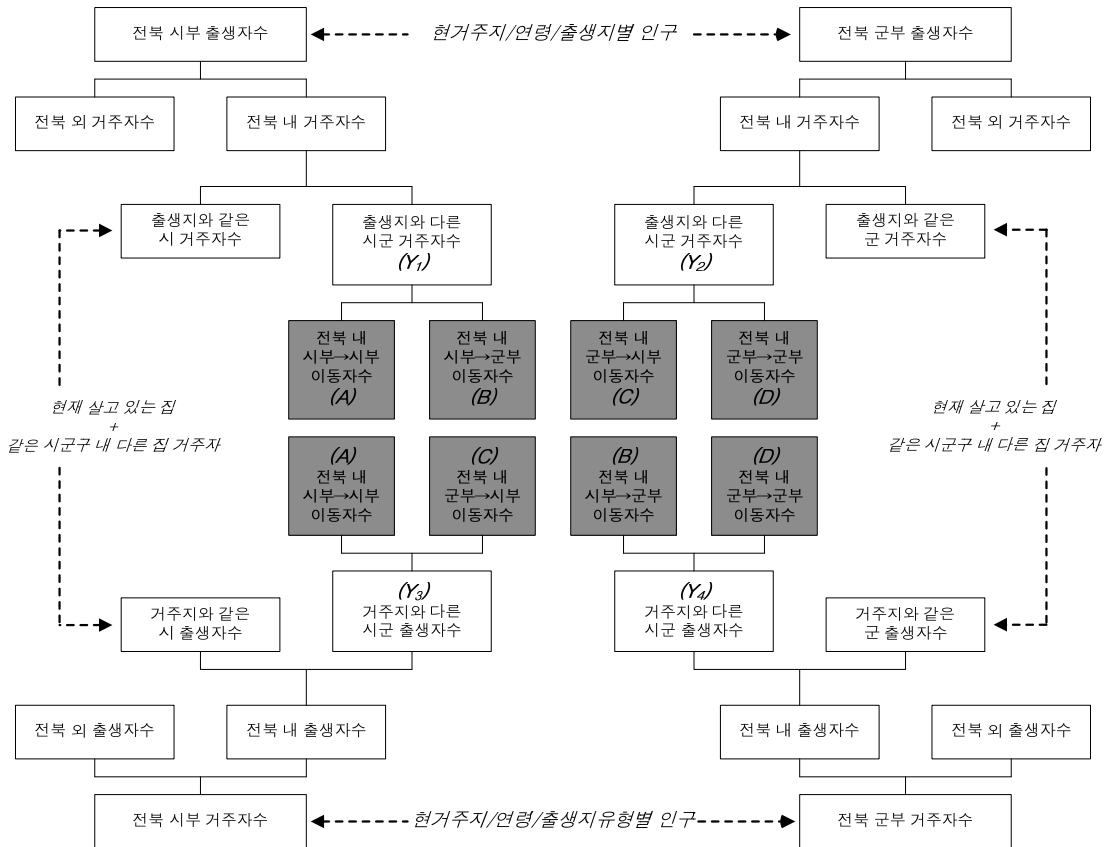


그림 1.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간 이동 추계방법

료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라북도 내의 도농 간 이동량 이외에도 시부→시부, 시부→군부, 군부→시부 및 군부→군부 등 네 가지 O-D 유형별 이동량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네 가지 이동유형별 이동량의 최소와 최대값 범위를 추계하였는데, 먼저 그림 1과 같이, 전북 시부 출생자 중 현재 전북 내 다른 시군 거주자수=Y1, 전북 군부 출생자 중 현재 전북 내 다른 시군 거주자수=Y2, 현재 전북 시부 거주자 중 전북 내 다른 시군 출생자수=Y3, 현재 전북 군부 거주자 중 전북 내 다른 시군 출생자수=Y4 로 구분했고, 해당 값들은 앞서 단계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북 시부→전북 시부 이동량=A, 전북 시부→군부 이동량=B, 전북 군부→전북 시부 이동량=C, 전북 군부→전북 군부 이동량=D라고 했을 때, Y1=A+B, Y2=C+D, Y3=A+C, Y4=B+D 라는 연립방정식이 도출된다.

해당 연립방정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A, B, C, D의 값인데, 이때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인구’ 자료에서 C값의 최소값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전라북도 군부 출생자 중 현재 전라북도 동부에 거주하는 이들의 수이다. 즉, 군 지역에는 동이 설치될 수 없기에 ‘군부→동부 이동량’은 ‘군부→시부 이동량의 최소값’이 된다. 1975년에서 1990년까지 전라북도 군부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서 2010년에 전라북도 동부 거주자의 수는 26,494명으로 이것이 C의 최소값이다. 한편 C의 최대값은 1975-1990년 전라북도 군부

출생자 중 2010년 자신이 태어난 군이 아닌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이들의 수가 되며, 그 값은 28,761명이다<sup>2)</sup>. 이러한 C의 최소와 최대값을 앞의 연립방정식에 대입해서 나머지 이동 유형들인 A, B, D의 각각 최소와 최대의 값을 추계하였다<sup>3)</sup>.

### 3) 1970-2010년 전라북도의 단계적 이동

20-34세 연령집단의 단계적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1970, 1990, 2010년의 O-D 행렬 및 여러 유형별 이입·이출량과 함께 그들의 출생지 분포에 관한 자료가 요구된다. 하지만 1970년 이전 시점에서는 공식적인 출생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연구에서는 세 시점의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인구’ 자료를 이용한 20-34세 연령집단 출생지 분포로 대신하였다. 따라서 1970, 1990 및 2010년에 각각 생존한 20-34세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출생지 분포를 작성하였고, 출생 시점과의 규모 차이는 해당 시점 생명표의 생존율(survival rate)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4)</sup>.

생존자를 기준으로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에서 태어난 이들이 20-34세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전라북도 시부, 군부, 다른 시도 중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며, 반대로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에 거주하는 같은 연령의 인구집단을 출생지별로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그리고 해당 표들에서 출생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것은 비이동에 해당되고, 나머지

표 5. 1970-2010년 전라북도 출생 20-34세 연령집단(생존자 기준)의 거주지별 분포

(단위: 명)

거주지 출생지	연도	총 수	다른 시도 거주	전북 시부 거주	전북 군부 거주
전북 시부 출생	1970('35-'50년생)	87,836	42,070	39,453	6,313
	1990('55-'70년생)	296,580	145,044	145,393	6,143
	2010('75-'90년생)	375,917	194,539	174,452~178,060	3,318~6,926
전북 군부 출생	1970('35-'50년생)	523,726	162,754	45,697	315,275
	1990('55-'70년생)	704,473	458,454	108,117	137,902
	2010('75-'90년생)	136,167	88,807	26,494~28,761	18,599~20,866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표 6. 1970-2010년 전라북도 거주 20-34세 연령집단(생존자 기준)의 출생지별 분포

(단위: 명)

출생지 거주지	연도	총수	다른 시도 출생	전북 시부 출생	전북 군부 출생
전북 시부 거주	1970('35-'50년생)	102,187	17,037	39,453	45,697
	1990('55-'70년생)	300,852	47,342	145,393	108,117
	2010('75-'90년생)	264,352	59,798	174,452~178,060	26,494~28,761
전북 군부 거주	1970('35-'50년생)	347,214	25,626	6,313	315,275
	1990('55-'70년생)	160,111	16,066	6,143	137,902
	2010('75-'90년생)	32,805	7,280	3,318~6,926	18,599~20,86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들은 출생지가 출발지, 거주지가 도착지인 이동유형과 해당 이동량이 된다. 이것을 그림 2, 표 7로 정리하였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1935-1950년, 1955-1970년 그리고 1975-1990년생 연령집단의 출생규모, 출생과 거주 지역의 분포 및 이동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출생한 세 집단의 규모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와 일치하는 1955-1970년생들이 약 1백만 명 이상으로 가장 크고, 1935-1950년생이 약 61만 명 그리고 1975-1990년생이 약 51만 명 순이었다. 다음으로 출생지를 시부와 군부, 즉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했을 때, 1935-1950년생은 도시

에서 태어난 이들의 수가 87,836명으로 전체 전라북도 출생자 중에서 약 14.4%를 차지했지만, 이후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약 30.0%와 73.4%로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거주지의 경우도 비슷한데, 20-34세 연령에 전라북도 내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1935-1950년생들이 1970년에 약 22.7%였지만, 이후 세대에서는 1990년 약 65.3%, 2010년에는 약 89.0%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시의 수가 증가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부의 범위가 확대된 것에 일정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시로 승격한 지역들이 점차 늘어난 것 그리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한 주요 배경은 인구 이동과 도시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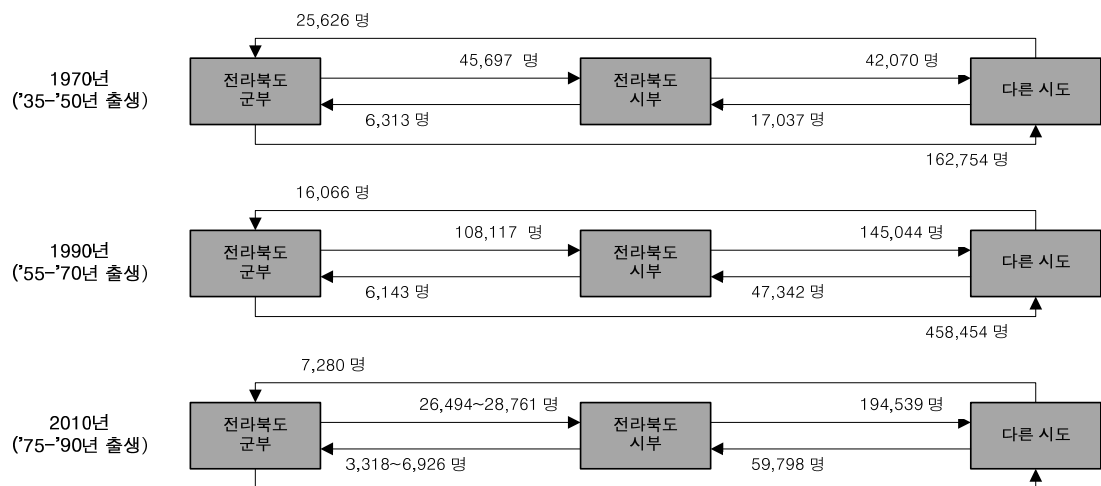


그림 2. 1970-2010년 20-34세 연령집단(생존자 기준)의 전라북도 시부, 군부와 다른 시도 간 이동자수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른 시도로의 이출이 가장 두드러지는 이동양상이었다. 순이동자수 기준으로 1970년 시부에서 -25,033명, 군부에서 -137,128명이 다른 시도로 이출되었고, 이후 1990년 -97,702명, -442,388명, 2010년 -134,741명과 -81,527명이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한 이들의 세부적인 도착지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가장 큰 규모이자, 동시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라북도 시부, 군부 간의 이동에서는 시부 지역이 꾸준하게 양의 순이동자수를 기록했고, 이는 단계적 이동과 관련된 유의미한 현상일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 시부에서 다른 시도로 이출된 이들 대다수의 도착지가 수도권임을 고려한다면, 1970년과 1990년에는 전라북도 시부에서 상위의 정주계층으로 이출한 인구 규모를 채워주거나, 나아가 상회하는 이입이 농촌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 흐름은 두 지역의 출생집단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전라북도 시부에서는 1935-1950

년에 비해 1955-1970년, 다시 1955-1970년에 비해서는 1975-1990년의 출생집단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군부에서는 1955-1970년에 비해 1975-1990년의 출생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입은 최근에도 계속된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그 규모는 축소되었고, 그 원인은 무엇보다 이전 시기 이동의 결과로 농촌에서 태어난 이들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전라북도 시부는 1975-1990년 출생집단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시도로 이출된 상황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경제개발과 산업화 기간의 이촌향도 과정에서 수도권에 도착하였던 이동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농촌에 인접한 전라북도 시부로 이동도 병행되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인구감소와 낮은 출산력, 반면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력과 인구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무렵 농촌에서 전라북도 시부로 이동한 이들은 도시지역에서 자녀 세대를 출산, 양육했는데, 최근 해당 자녀 세대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 보다 더 상향 정주계층 지역인 수도권

표 7. 1970-2010년 20-34세 연령집단(생존자 기준)의 전라북도 시부, 군부와 다른 시도 간 순이동자수 (단위: 명)

연도	전라북도 시부			전라북도 군부	
	다른 시도와 순이동자수	전북 군부와 순이동자수	전체 순이동자수	다른 시도와 순이동자수	전체 순이동자수
1970	-25,033	39,384	14,531	-137,128	-176,512
1990	-97,702	101,974	4,272	-442,388	-544,362
2010	-134,741	19,568~25,443	-111,565	-81,527	-103,362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표 8. 1970-2010년 전라북도 시부, 군부 출생 20-34세 연령집단(생존자 기준) 중 수도권 거주자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라북도 시부 출생자			전라북도 군부 출생자		
	다른 시도 거주자수(A)	수도권 거주자수(B)	(B) / (A)	다른 시도 거주자수(A)	수도권 거주자수(B)	(B) / (A)
1970('35-'50년생)	42,070	31,299	74.4	162,754	118,221	72.7
1990('55-'70년생)	145,044	111,537	76.9	458,454	354,318	77.3
2010('75-'90년생)	194,539	142,772	73.4	88,807	63,791	71.2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및 대도시로 선별적 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행 세대의 전라북도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 뒤따른 후행 세대의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 수도권 중심의 다른 시도로 단계적 이동은 전라북도 도시 지역 인구가 과거 증가에서 최근 감소로 전환되는 것의 주요 원인이 된다.

#### 4. 전라북도 도시, 농촌의 출산력과 인구성장 변화

##### 1) 전라북도 도시와 농촌의 출산력 변화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의 인구이동은 해당 지역의 가입과 출산 인구집단의 규모, 나아가 출산력 변화로 이어졌다.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에서 선별적 이동과 관련성이 높은 20-34세 그리고 가입 인구집단인 15-49세 여성 인구의 변화는 표 9와 같다. 시부의 20-34세 연령 여성인구는 1966년부터 1995년까지, 그리고 가입연령기 여성인구는 1966년부터 200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로 전환되었고, 군부에서는 1966년부터 두

연령집단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물론 1995년까지의 변화추세에는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행정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1995년에서 2010년까지 변화를 추려서 그 추세를 확인한다면,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모두에서 젊은 그리고 가입 여성인구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시부의 감소 규모와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34세를 포함한 가입연령 여성 인구집단의 이동과 분포규모 변화는 출산력 변화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출생 통계를 기초로 1971년 이후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의 출생아수와 조출생률 변화는 표 10과 같다. 해당 기간 군부의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의 출생아수는 1971년의 약 3.2%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시부는 1995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지만, 이후 감소로 전환되었고, 조출생률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부와 군부의 평균이 아닌 시군별로 구분하여 조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현 시점과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개편된 1995년 이후, 6개 시 지역 중에서 전주·군산·익산시의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표 9. 1966-2010년 전라북도 시부, 군부의 20-34세와 15-49세 여성 인구 증감 변화

(단위: 명)

연도	전라북도 전체				시부				군부			
	20-34세		15-49세		20-34세		15-49세		20-34세		15-49세	
	인구수	증감수	인구수	증감수	인구수	증감수	인구수	증감수	인구수	증감수	인구수	증감수
1966	247,494		540,408		43,475		96,294		204,019		444,114	
1970	221,677	-25,817	510,012	-30,396	51,747	8,272	112,814	16,520	169,930	-34,089	397,198	-46,916
1975	218,577	-3,100	539,859	29,847	67,132	15,385	150,015	37,201	151,445	-18,485	389,844	-7,354
1980	221,818	3,241	529,315	-10,544	89,335	22,203	183,283	33,268	132,483	-18,962	346,032	-43,812
1985	233,253	11,435	532,659	3,344	128,896	39,561	264,034	80,751	104,357	-28,126	268,625	-77,407
1990	235,533	2,280	528,392	-4,267	159,323	30,427	328,615	64,581	76,210	-28,147	199,777	-68,848
1995	218,304	-17,229	492,309	-36,083	188,316	28,993	412,450	83,835	29,988	-46,222	79,859	-119,918
2000	208,190	-10,114	482,364	-9,945	182,818	-5,498	414,657	2,207	25,372	-4,616	67,707	-12,152
2005	174,905	-33,285	433,485	-48,879	155,630	-27,188	379,574	-35,083	19,275	-6,097	53,911	-13,796
2010	149,812	-25,093	410,365	-23,120	133,857	-21,773	362,646	-16,928	15,955	-3,320	47,719	-6,192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주: 각 연도 증감수는 직전 센서스와의 차이임.

표 10. 1971-2010년 전라북도 시부, 군부의 출생아수와 조출생률 변화

(단위: 명, %)

연도	전국 조출생률	전라북도 조출생률	시부			군부		
			인구수	출생아수	조출생률	인구수	출생아수	조출생률
1971	31.2	34.8	473,226	12,317	26.0	1,942,685	71,802	37.0
1975	24.8	24.6	583,028	11,184	19.2	1,873,427	49,308	26.3
1980	22.6	23.5	677,673	14,959	22.1	1,609,839	38,890	24.2
1985	16.1	14.2	945,213	21,607	22.9	1,257,030	9,651	7.7
1990	15.2	11.5	1,143,828	18,868	16.5	926,020	4,885	5.3
1995	15.7	13.5	1,562,414	22,720	14.5	444,188	4,365	9.8
2000	13.3	12.5	1,603,794	21,108	13.2	395,461	3,828	9.7
2005	8.9	8.3	1,528,815	13,239	8.7	356,520	2,379	6.7
2010	9.4	8.6	1,525,536	13,233	8.7	343,427	2,867	8.3
2013	8.6	7.8	1,530,946	12,258	8.0	342,019	2,297	6.7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및 주민등록인구현황/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연보.

주: 1971-1995년 출생아수는 지연신고에 따른 오차를 감안하여, 현재와 가장 근접한 시점의 인구동태통계연보 자료임.

나머지 3개 시는 이미 1995년부터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고, 최근에는 일부 군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만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였고, 다른 7개 군은 상당히 낮은 조출생률이 지속되고 있다.

## 2) 자연적 인구감소의 단계적 확장

이 같은 전라북도 시부와 군부, 혹은 14개 시군의 출산력 변화는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전체 인구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10년 행정구역 기준에서 1975년부터 5년 단위로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인구증감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군산·익산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완주군은 감소에서 최근 증가로 전환되었을 뿐, 나머지 11개 시군은 1975년에서 2010년까지 계속 감소세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구성장은 국가 스케일에서는 자연적 성장, 지역 스케일에서는 사회적 성장에 주된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출산력과 사망력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수준이기에, 전라북도의 개별 시군 간 인구성장 차이의 주요 원인도 이동에 따른 사회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인구성장을 자연적, 사회적 성장으로 분해했을 때 198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에서는 자연적 감소가 확연히 확

표 11. 1995-2013년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조출생률 변화

(단위: %)

연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995	15.7	14.6	15.8	12.0	12.1	11.1	12.5	8.4	9.8	8.3	9.4	8.4	9.5	9.3
2000	14.4	13.4	13.6	11.0	11.3	9.8	12.6	9.2	7.8	8.6	7.9	8.8	8.5	9.3
2005	9.2	8.6	9.0	7.3	7.8	6.6	9.5	5.5	6.9	7.0	5.3	6.6	5.1	5.4
2010	9.1	9.6	8.6	7.5	7.8	7.2	11.8	11.8	7.1	8.0	8.1	7.4	5.7	6.1
2013	8.4	9.4	7.7	6.2	7.1	6.2	9.4	8.3	6.0	7.0	7.1	5.4	4.7	5.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및 주민등록인구현황/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12. 1975-2010년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인구증감 변화(2010년 행정구역 기준)

(단위: 명)

기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975-1980	57,109	-631	8,656	-27,243	-20,115	-28,226	-17,724	-17,268	-14,517	-15,318	-20,321	-18,063	-30,236	-24,792
1980-1985	62,411	9,738	18,886	-21,166	-14,852	-22,198	-18,417	-15,253	-9,322	-10,430	-15,495	-13,053	-19,738	-16,722
1985-1990	67,003	6,142	-10,818	-14,461	-15,712	-21,199	-25,013	-18,477	-10,150	-13,218	-20,140	-15,116	-29,491	-11,468
1990-1995	46,094	-20,486	13,305	-46,212	-20,980	-34,364	-6,987	-12,650	-7,756	-7,285	-11,137	-10,129	-18,954	-30,375
1995-2000	53,315	6,146	1,002	-9,959	-8,618	-12,838	-2,230	-1,829	-1,970	-3,571	-6,402	-4,822	-11,842	-7,757
2000-2005	6,830	-22,704	-15,543	-13,392	-8,874	-11,937	404	-6,284	-5,069	-2,749	-5,042	-4,184	-8,754	-9,358
2005-2010	26,430	10,535	-11,778	-5,408	-7,282	-7,350	3,867	-3,546	-566	-1,143	-2,094	-1,090	-2,849	-4,519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표 13. 전라북도 8개 군의 자연적 인구증감 변화

(단위: 명)

연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987				-44		-87	-53	
1988				-16		-22	-10	
1989		-61	-37	-69	-34	-143	-96	
1990		-118	-30	-66	-130	-165	-232	-87
1995	205	-130	-11	-95	-154	-206	-139	-42
2000	317	-67	-96	-73	-190	-163	-243	-94
2005	62	-157	-114	-88	-243	-167	-433	-333
2010	236	-12	-84	-115	-104	-158	-330	-263
2013	84	-98	-139	-105	-151	-224	-397	-39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연보.

인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다. 즉 해당 시점 이전에는 자연적 인구성장은 증가였지만, 이 규모를 상회하는 이출로 전체 인구의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이후에는 여전한 이출과 함께 자연적 인구성장도 감소로 전환된 지역이 발생했고, 그러한 지역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자연적 인구성장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 곳은 1987년 장수·순창·고창군이였다. 그리고 1989년에는 진안·무주·임실군, 1990년 부안군 등 완주군만 제외하고 나머지 군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적 인구감소 지역이 되었다. 이후 전라북도 시 지역 일부에서도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는데, 2000년 김제시, 2003년 정읍시, 2004년 남원시 순이며, 전라북도 6개 시 중 절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들 시군에서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

타날 무렵,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0%를 초과하였다. 전라북도 시군에서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경향은 이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한 전국적인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단계적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난 지역은 이후 시점에서 증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자연적 인구감소가 발생한 7개 군, 3개 시 지역 모두 마찬가지이다. 둘째 자연적 인구감소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감소로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이출, 가임·출생 인구집단 규모 축소와 저출산, 인구구조적으로 고령화(aging)와 고령(aged) 사회 진입, 그리고 자연적 인구감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이런 과정은 군 지역에서 먼저 진행되고 이후 시 지역도 뒤따르고, 그 시차는 전라북도 시군의 자연적 인구감소를 중심에

표 14. 전라북도 6개 시의 자연적, 사회적 인구 증감 변화

(단위: 명)

연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2000	6,145	3,810	2,032	-4,185	2,450	-3,403	354	534	215	-1,188	-35	-2,663
2001	5,061	-3,299	1,661	-2,435	2,074	-1,641	189	-398	215	191	-119	-502
2002	3,881	-1,679	1,065	-5,775	1,580	-6,236	0	-12,680	108	-3,693	-283	-3,972
2003	3,674	-9,340	954	-4,322	1,420	-6,283	-19	16,205	96	1,462	-288	9
2004	3,438	215	904	-4,375	1,159	-4,019	-85	-22,949	-12	-5,695	-336	-5,179
2005	2,892	-3,615	613	-2,661	979	-4,851	-301	-2,934	-144	-2,429	-302	-2,173
2006	2,773	327	667	-2,798	862	-4,274	-248	-2,553	-112	-2,293	-325	-2,157
2007	3,402	-4,325	900	-1,327	1,008	-2,512	-169	-1,841	-74	-1,944	-241	-2,382
2008	2,994	4,612	692	2,591	801	-5,122	-309	-1,088	-121	-770	-273	-1,535
2009	2,665	810	808	2,269	597	-3,197	-314	-983	-147	-534	-302	-735
2010	2,843	3,675	815	4,864	724	-104	-254	709	-129	229	-257	-167
2011	2,967	1,402	949	2,109	666	1,849	-265	-1,269	-118	-202	-240	-995
2012	2,863	106	951	1,731	703	-4,038	-295	-779	-196	-259	-343	-451
2013	2,399	-1,180	837	-859	348	-278	-439	-625	-219	-321	-442	-657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통계청, 연도별, 인구동태통계연보.

두었을 때 약 15년 안팎이었다.

### 5. 요약과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사례로 짚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 및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이 농촌과 도시의 출산력 변화, 나아가 전체 인구성장에 파급되는 과정 및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젊은 연령집단들의 선별적 이동과 그 과정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라북도 농촌→전라북도 시부→수도권과 대도시’로의 단계적 이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1970, 1990, 2010년 세 시점에서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해 순이동자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시점의 횡단면적(cross sectional) 탐색에서는 전라북도 군부와 시부 모두에서 젊은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인구

이동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종단면적(longitudinal)으로 세 시점의 지역 간 순이동자수를 비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1970과 1990년에는 전라북도 시부에서 상위의 정주계층에 해당하는 수도권으로 이출된 인구 규모에 상응 혹은 상회하는 군부로부터의 이입이 존재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서는 전라북도 시부에서 수도권 이출량은 확대되었고, 군부에서 시부로 이입량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2010년 전라북도 농촌과 도시의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이동에 있어 차이는 선행 세대들의 이동에 기인한 것으로, 농촌은 계속된 이출에 따라 출산력이 낮아졌지만, 도시는 과거 농촌에서의 이입으로 출산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과거 선행 세대와 현재 후행 세대 모두 젊은 연령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선별적 이동이라는 연령 효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선행 세대는 전라북도 농촌에서 수도권 및 전라북도 도시 지역으로 이동, 후행 세대는 전라북도 도시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두 세대 간에는 이동 출발지가 다른 코호트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전라북도 시부를 중심에 놓고 살펴보면, 과거 선행 세대가 젊은 연령이었을 때의 전라북도 농촌에서 유입이 있었고, 현재 후행 세대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동일한 연령에 이르러 수도권으로 이출하는 단계적 이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단계적 이동은 정주 계층을 따라 단계적 출산력 및 인구성장 감소로 이어졌다. 전라북도 농촌에서 젊은 연령집단 이출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가임·출생 인구집단 규모의 축소, 출산력 저하와 고령화를 거쳐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상회하는 자연적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에서 이입에 따른 인구 증가의 선순환이 최소한 이 연구의 1970년과 1990년 자료에서는 확인된다. 하지만 2010년 자료에서는 젊은 연령집단의 수도권으로 이출을 매개로 전라북도 도시지역도 과거 농촌이 경험했던 악순환의 경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2000년 초반부터 인구규모가 작은 김제·정읍·남원시에서는 젊은 연령인구의 이출과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음의 자연적 인구성장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양의 자연적 인구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익산시도 2000년 이후 계속되는 사회적 인구와 조출생률의 감소<sup>5)</sup>를 감안한다면, 가까운 시점에 음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젊은 연령집단의 이출→가임과 출산 인구집단 규모 축소→저출산과 고령화→음의 자연적 인구성장이라는 인구 과소화 과정은 전라북도 농촌에서 먼저 진행되었고, 약 15년 내외의 시차를 두고 전라북도 일부 도시들에서 재현되고, 나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 간 해당 과정의 시차는 단계적 이동, 즉 과거 이촌향도라는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큰 흐름에서 일부 농촌 태생의 선행 세대가 전라북도 도시들로 이입했던 것의 영향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계속 더 상향의 정주계층으로 이출되고 있기에,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정주계층을 따른 단계적 이동은 마찬가지로의 단계적 인구 과소화로 귀결될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과 비수도권 중소도시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선별적 그리고 단계적 이동이 출산력의 지역적 불균등과 인구과소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최근까지 비교적 긴 시간적 범위의 분석에서 직면한 몇몇 자료, 특히 집계수준 자료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한계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간 몇 차례 행정구역 개편, 조정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범위에 변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부와 군부로 구분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존한 점, 그리고 비록 조출생률이 한 지역의 출산력을 대표하는 지표이지만 일관성 있는 출산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분석과 해석이 제한되었다. 나아가 이 문제는 보다 정교하게 인구의 사회적 성장과 자연적 성장을 매개할 수 있는 단계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도 제약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있음을 밝힌다.

## 주

- 1)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1970년과 1990년, 8개 도의 시부 지역 전체 순이동자수를 비교하면, 217,918명에서 184,684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970년에 각 도의 시부 지역에 속하였다가 직할시로 승격된 대구, 광주, 대전의 순이동자수를 합했을 때는 746,188명으로 오히려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 2) 이것은 전라북도 군부 출생자 중에서 현재 읍부와 면부에 거주하는 이들도 군부→시부 이동자로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되면서, 행정구역으로서 시 지역들은도 동·읍·면으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전라북도 군부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서 현재 거주지가 자신이 태어난 군이 아닌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이들의 수가 전북 내 군부→시부 이동량의 최대값이 된다.
- 3) 이 연구가 제시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전라북도 군부 출생자 중 현재 동부 거주자수를 어디에 먼저 투입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즉 전북 군부 출생자수 기준의 1차 방정식(Y2)에 먼저 대입할 때와 전북 시부 거주자수 기준의 1차 방정식(Y3)에 먼저 대입했을 때 두 값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현거주지/연령/출생지별 인구' 자료에 전북 내 거주자 중 출생지가 시부, 군부를 구분할

- 수 없는 미상의 수가 1,341명, ‘현거주지/연령/출생지유형 별 인구’ 자료에는 다른 시군구 출생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미상의 수가 56명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경우를 모두 구한 후 이동량의 전체 최소, 최대값 범위로 표시하였다.
- 4) 통계청의 간이생명표를 기준으로 생잔율 변화를 살펴 보면, 일제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등의 시기에 태어난 1970년 35세(34년생)의 생잔율은 86.596%, 20세(50년생)은 91.441% 였지만, 이후 세대들에서는 점차 높아져서, 1990년 35세는 95.349%, 20세는 97.380% 그리고 2010년 35세는 98.435%, 20세는 99.331% 이다.
- 5) 2000년 이후 익산시에서 사회적 인구증가가 나타난 해는 2011년뿐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2012년에는 오히려 2010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의 사회적 인구감소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와 같은 지자체와 시의회가 인구 늘리기 운동을 진행한 것과 관련된 듯하다.

### 참고문헌

- 권상철, 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71-584.
- 권태환·김두섭, 2007,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 김태현, 1996, “농촌인구의 특성과 그 변화, 1960-1995: 인구구성 및 인구이동,” 한국인구학, 19(2), 77-105.
- 김태현, 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37, 4-11.
- 김혜경, 1989, 한국의 초혼연령과 출생간격의 변화에 대한 연구: 1935-1985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기, 1999, “선별이동이 농촌사회에 미친 영향,” 농촌사회, 9, 219-248.
- 이삼식·정경희 외, 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동,” 한국인구학, 32(3), 43-72.
- 이정섭, 2014,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성장과 단계적 이동: 전라북도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9(4), 525-545.
- 이한순, 1988, “도시중심 인구의 이동방향과 특징,” 도시문제, 259, 35-48.
- 이흥탁, 1987, 인구학: 이론과 실제, 법문사, 서울.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서울.
- 정구현, 2000, “한국의 출산력 추이 및 전망,” 통계분석연구, 5(2), 111-132.
- 정수열, 2013, “국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쟁점: 지리학적 접근을 위한 소고,” 국토지리학회지, 47(2), 129-141.
- 최은영, 2004, “선택적 인구이동과 공간적 불평등의 심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2), 57-69.
- 최진호, 2008,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159-178.
- Conway, D., 1980, Step-wise migration: toward a clarification of the mechan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4(1), 3-14.
- Foulkes, M. and Newbold, K. B., 2000, Migration propensities, patterns,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comparing Mexican, Cuban, and Puerto Rican interstate migration, 1985-1990,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2(1), 133-145.
- Hagerstrand, T., 1957, Migration and area; survey of a sample of Swedish migration fields and hypothetical consideration in their genesis, in Migration in Sweden: a symposium, Hannerberg, D., Hagerstrand, T. and Bruno, O.(eds), *Lund studies in geography*, series B, human geography, 13, 27-158.
- Pryor, R., 1969, Law of migration?: the experience of Malaysia and other countries, *Geographica*, 5, 65-76.
- Riddell, J. B. and Harvey, M. E., 1972, The urban system in the migration process: an evaluation of step-wise migration in Sierra Leone, *Economic Geography*, 48(3), 270-283.
- Roseman, C. C., 1977, Changing migration patterns within the United States, *AAG Resource Papers for College Geography*, No. 77-2.
- Shaw, R. P., 1975, *Migration theory and fact; a review and*

*bibliography of current literature*, Reg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Bibliography Series No. 5.

Skeldon, R., 1977, The evolution of migration patterns during urbanization in Peru, *Geographical Review*, 67(4), 394-411.

Zelinsky, W., 1971, The hypothesis of mobility transition, *Geographical Review*, 61(2), 219-249.

교신: 김성환,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phygeokim@

chol.com, 전화: 051-999-5260, 팩스: 051-999-5370)

Correspondence: Sung Hwan Kim, Dept. of Geography, Silla University, 140 Baegyang-daero(Blvd) 700beongil(Rd), Sasang-gu, Busan, 617-736, Korea (e-mail: phygeokim@chol.com, phone: +82-51-999-5260, fax: +82-51-999-5370)

최초투고일 2014. 10. 6

수정일 2014. 10. 25

최종접수일 2014. 10. 29